

제거주의와 인지적 자살 논변

백도형
숭실대 철학과

1.

어떤 점에서 본다면 제거주의는 심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듯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제거주의를 선택하는 댓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 심신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제거주의를 거부하는 이유이다. 제거주의는 일견 가장 극단적인 입장이고 어쩌면 그에 따라 가장 강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선택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까지 심신 문제에 관심있는 철학자들중 대부분은 제거주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감은 대체로 제거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논박보다는 제거주의의 공격 대상이면서 우리의 생각 자체에 중요한 상식적 배경을 이루는 지향 심리학에 대한 방어로써 표현되고 있다.¹⁾

제거주의 자체에 대한 거의 유일하면서도 명쾌한 논박은 제거주의가 실천적으로 비정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논박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이러한 논박의 내용은 린네 베이커(Lynne Rudder Baker)의 논문인 “인지적 자살 (Cognitive Suicide)”(1988)²⁾에 잘 드러나 있다.³⁾

이 절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 그 논변은 얼핏 보기엔 강력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제거주의의 중요한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알려진 것만큼 그리 강력한 비판은 되지 못함을 논하겠다.

2.

우선 제거주의가 인지적 자살행위라는 논변(앞으로 이 글에서는 이 논변을 “인지적 자살 논변”이라 부르겠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향 심리학의 핵심적인 특징은 내용(믿음, 의도 등등)에 의해 정체되는(identified) 태도를 귀속하는 것이다.
- 2) 만일 지향 심리학이 거짓이라면, 신경 과학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결코 내용에 의해 정체되는 믿음 혹은 다른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
- 3)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참이라면, 어떻게 믿음없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 없이는 그 주장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요컨대 제거주의의 핵심 주장(단계 2)대로 지향 심리학이 거짓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나 의도나 하는 명제 태도들을 가진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인간에게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없다면 2)와 같은 제거주의의 주장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제거주의는 믿음과 같은 지향 심리학의 용어는 거부하면서 믿음없이 어떻게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적절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거주의의 주장은 자기 부정에 불과하다는 것

- 1) 예컨대 Kitcher, P.(1984), “In Defense of Intentional Psychology” in : *Journal of Philosophy* (1984. 2.), 그리고 Jackson, F.(1982), “Epiphenomenal Qualia” rp. in : *Mind and Cognition* (W. Lycan ed., 1990)을 볼 것.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 글에서 초점을 두려는 보편자로서의 속성의 실재 문제가 이런 여러 나머지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새로운 조명을 제시해 줄 것 같다.
- 2) Baker, L. R.(1988), “Cognitive Suicide” in : *Contents of Thought* (edited by R.H. Grimm & D.D. Merrill,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 3) Baker(1986), *Saving Belief*에도 나와 있음. 그러나 사실은 이 반박은 그 전부터 잘 알려져 있던 제거주의의 비판 논변으로 Churchland(1988), *Matter and Consciousnes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2nd ed., The MIT Press, 『물질과 의식: 현대심리철학입문』 석봉

래 옮김, 서광사 1992)와 1981년에 출판된 그것의 초판, 그리고 Churchland(1981)“Eliminative materialism and the Propositional Attitudes” rp. in: Churchland(1989) *A NEUROCOMPUTATIONAL PERSPECTIVE* (The MIT Press)에도 이미 언급되고 인용되어 있다.

이다.

제거주의자인 처칠랜드(Paul Churchland)는 이미 이에 대해 응수한 바 있다. 그는 인지적 자살 논변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그 점에서 제거주의를 비판하는 인지적 자살 논변이 반생기론(反生氣論, anti-vitalism)을 비판하는 논변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두 논변을 살펴보자.⁴⁾

[인지적 자살 논변]

제거주의를 주장하는 진술은 부호나 소리의 의미없는 나열에 불과하다. 그 나열이 일정한 믿음, 의사소통하려는 의도, 그리고 언어의 문법에 관한 지식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그러나 만일 제거주의를 주장하는 진술이 참이라면, 그러한 표현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진술은 부호나 소리의 의미없는 나열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참이 아니다.

[반생기론에 대한 비판 논변]

반생기론자들은 생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기 반박적이다. 화자는 자신의 주장이 진지하게 여겨지도록 기대할 수 없을 때에만 진지

하게 여겨지도록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주장이 참이라면, 화자는 생기를 가지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죽은 존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죽은 존재라면 그의 진술은 이성과 진리를 결여한 의미없는 나열이다.

처칠랜드는 이 두 논변이 서로 평행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parallel)데 반생기론에 대한 반박 논변인 두번째의 것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첫번째 논변인 제거주의를 비판하는 인지적 자살 논변도 마찬가지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베이커는 이러한 처칠랜드의 반박에 대해 위의 두 논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들 때문에 서로 평행한 것이 아니라고 재반박한다. 그의 말을 한 가지씩 들어보자.

첫째, 반생기론을 비판하는 논변은 이렇다. 반생기론의 입론은 그 입론이 거짓이라는 가정 위에서는 주장될 수 없다. 그러나 제거주의에 대한 비판 논변은 이렇다. 제거주의의 입론은 그 입론이 참이라는 가정 위에서는 주장될 수 없다. 전자는 분명히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⁵⁾

요점은 이것이다. 반생기론에 대한 반대 논변은 반생기론이 거짓이라는 가정 위에서는 반생기론은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인데 반해, 제거주의에 대한 반대 논변은 제거주의가 참이라는 가정 위에서 제거주의는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선결문제를 요구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러한 베이커의 첫번째 반박은 명백한 그의 실수이다. 반생기론에 대한 반박 논변에 의하면 반생기론이 주장될 수 없는 경우는 그의 지적처럼 반생기론이 거짓인 경우가 아니고 참인 경우였다. (위의 두 논변에서 강조된 부분을 주목하라.) 즉 생기론이 거짓인 경우에는 화자가 생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화자는 죽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죽은 화자에서 나오는 진술은 무의미한 잡음들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베

4) Baker(1988), p. 13. (필자 강조)
[Cognitive suicide argument]

The statement of eliminative materialism is just a meaningless string of marks or noises, unless that string is the expression of a certain belief, and a certain intention to communicate, and a knowledge of the grammar of the language, and so forth. *But if the statement of eliminative materialism is true*, then there are no such states to express. The statement at issue would then be a meaningless string of marks or noises. It would therefore not be true. Therefore it is not true. Q.E.D.

[an argument against anti-vitalism]

The anti-vitalist says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vital spirit. But this claim is self-refuting. The speaker can expect to be taken seriously only if his claim cannot. *For if the claim is true*, then the speaker does not have vital spirit and must be dead. But if he is dead, then his statement is a meaningless string of noises, devoid of reason and truth.

5) Baker(1988), p. 13. (her italic, my emphasis)

First, the argument against anti-vitalism has it that the thesis of anti-vitalism can not be assert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thesis is *false*; but the argument against eliminative materialism has it that the thesis of eliminative materialism can not be assert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thesis is *true*. The former is clearly question-begging; the latter is clearly not.

이커가 지적했던 점에서는 두 논변은 애초부터 평행한 것이었다.

둘째, 두 경우 가상 비판자들은 그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정들에 있어서 상이함을 보인다. 반생기론자와 생기론자는 살아있음이 주장을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라는 것에 서로 동의한다. 반생기론자는 단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에서만 다를 뿐이다. 반면에 제거주의자는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믿음 등 태도들이 주장을 하는 데에 필요조건이라는 그의 반대자의 견해에 일관되어 동의할 수는 없다. 제거주의자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상이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부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믿음을 지닌다는 것이다. 제거주의자와 평행하려면 반생기론자는 죽은 자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생기론을 비판하는 논변의 잘못은 그것이 제거주의의 비판 논변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⁶⁾

즉 베이커에 의하면, 반생기론자와 생기론자는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주장을 하는 데에 필요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하는데 반해, 제거주의자는 믿음 등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떤 주장을 하는 데에 필요조건이라는 제거주의 비판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이러한 두번째 반박 역시 제거주의의 논점에 대한 충분치 못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제거주의의 논점을 반생기론의 논점과 평행하게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마찬가지로 제거주의자도 X를 지님이 주장을 하는 데에 필요조건이라는 그의 반대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제거주의자는 단지 X를 지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 제거주의자는 X가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태도들이라는 그의 반대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X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최종 과학에 속한다고 생각한다.)⁷⁾

베이커의 세번째 반박은 다음과 같다.

반생기론에 대한 비판 논변의 잘못은 제거주의에 대한 비판 논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생기론이 참이란 가정 위에서든 거짓이든 거짓이든 거짓이든 생기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반생기론자에게 죽었다는 혐의를 두는 것은 실수이다. 반생기론이 참이라면 생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생기론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반생기론자는 생기를 지니고 있으며 죽지 않고 있는 것이다.⁸⁾

나는 이러한 세번째 반박도 두번째 반박과 비슷한 문제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내가 제거주의자라면, 다음과 같이 덧붙이겠다.

마찬가지로 제거주의가 참이라는 가정 위에서든 거짓이든 거짓이든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태도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

6) Baker(1988), pp. 13-4, and Baker(1987), p. 139.

Second, the pairs of imaginary disputants differ in the presuppositions that they share. The anti-vitalist would agree with the vitalist that being aliv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making a claim; he just differs in his account of what it is to be alive. The eliminative materialist, on the other hand, could not consistently agree with his opponent that having beliefs or other attitudes identified by conten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making claims; the eliminative materialist is not offering a different account of what it is to have beliefs. He is denying that anyone has beliefs; the parallel to eliminative materialist would be an anti-vitalist who held that dead men make claims. Therefore, the silliness of the argument against anti-vitalism has no bearing on the argument against eliminative materialism.

7) Churchland(1981), p. 19.

The eliminative materialist, likewise, would agree with his opponent that having X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making claims; he just differs in his account of what it is to have Xs; he does not agree with his opponent that Xs are beliefs or other attitudes identified by content. (He thinks that Xs are not known what yet and belong to Ubersatze.)

8) Baker(1987), p. 139 (her italic).

[T]he error in the argument against antivitalism has no echo in the argument against eliminative materialism. It is a mistake to charge the antivitalist with being dead on account of lacking a vital spirit *either* on the assumption that antivitalism is true *or* on the assumption that antivitalism is false. If antivitalism is true, then the lack of a vital spirit is irrelevant to death; if it is false, then the antivitalist, who mistakenly denies vitalism, has a vital spirit and is not dead.

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거주의자에게 혐의를 두는 것도 잘못이다. 제거주의가 참이라면,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태도들의 결여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적절한 것이 아니요, 거짓이라면, 지향 심리학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제거주의자는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주장을 하는 것이다.⁹⁾

3.

베이커가 이러한 비판들을 제시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된 생각은 제거주의는 믿음 등 지향 심리학이 다루는 명제 태도들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아직 명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제거주의가 하는 주장 자체는 명제 태도들을 전제로 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기 입장 내에서도 실천적 부정합성(practical incoherence)을 띠고 있으며 결국 인지적 자살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론 인지적 자살 논변은 그리 설득력있는 비판이 못되는 것 같다. 사실 위의 논변과 같이 자기 지시 진술의 역설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논변은 철학사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¹⁰⁾ 이러한 논변은 얼핏 보기에는 명쾌해

9) Likewise, it is also a mistake to charge the eliminative materialist with not making a claim on account of lacking beliefs or other attitudes identified by content either on the assumption that eliminative materialism is true or on the assumption that eliminative materialism is false. If eliminative materialism is true, then the lack of beliefs or other attitudes identified by content is irrelevant to not making a claim; if it is false, then the eliminative materialist, who mistakenly denies intentional psychology, has beliefs or other attitudes identified by content and makes a claim.

어떤 이는 이에 대해 처음의 반생기론과 제거주의의 두 논변에서 '주장을 함(making a claim)'과 '살아 있음(being alive)'은 내가 지금 제시한 것처럼 평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나는 '주장을 함'을 'X를 가짐(having Xs)'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꿈으로써 처음의 두 논변이 평행한 것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여기서 두 논변이 평행하다는 것으로 제시하려는 요점은 두 논변이 모두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점만 보일 수 있다면 두 논변의 각 항들이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반드시 ('주장을 함'을 'X를 가짐'으로 바꾸면서까지) 드러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이지만 공격하려는 입장의 핵심을 지적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비생산적인 공방에 빠질 우려가 있다.¹¹⁾ (물론 이 경우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¹²⁾)

따라서 제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거주의가 지닌 전제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서 나는 그러한 전제로 **실재론적인 토대를 지적하는 것이다.**¹³⁾ 처칠랜드식 제거주의의 기본 입론을 그 실재론적인 토대를 보이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⁴⁾

(P1) 최종 과학은 자연 세계에 내재하는 인과적 필연성과 그 필연성 속에서 인과적 역할을 담당하는 법적적 속성을 지적해 준다.

(P2) 우리가 '정신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해 주는 최종 과학은 바로 신경 과학이다.

(P3) 따라서 신경 과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정신 현상'은 단순히 부수현상에 불과하다.

(P4) 따라서 지향 심리학이 신경 과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부수현상에 관한 이론일 뿐, 진정한 존재자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1] [그러므로] 신경 과학이 지향 심리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향 심리학은 거짓이다.

[2] 신경 과학은 지향 심리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지향 심리학은 거

10) 예컨대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등을 생각해 보자.

11) 예컨대 Churchland(1981)에서는 인지적 자살 논변이 그라이스 식의(Gricean) 의미론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pp. 21-2를 볼 것.

12) 나는 백도형, "환원, 속성, 실재론" (『哲學』 제 43집 1995 봄호, 한국철학회)에서, 정신 인과(mental causation) 문제에 관한 김재권과 데이비슨의 논쟁도 인과성의 문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였다.

13) 백도형(1995), "제거주의와 실재론" (『哲學研究』 제 36집 1995 봄호, 철학연구회) 참조.

14) 이하의 입론은 백도형 "제거주의와 실재론"의 p. 268, p. 270에 나오는 두 입론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것이며, 신경 과학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여기서 (P4)와 [2]에서 신경 과학이 지향 심리학을 입증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향 심리학이 신경 과학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신경 과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지향 심리학이 거짓이고 지향 심리학의 현상이 부수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이러한 제거주의의 강한 입장은 실재론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¹⁵⁾

이제 제거주의의 실재론적 전제를 염두에 두고 인지적 자살 논변을 다시 검토해 보자. 나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 자살 논변은 주장함의 조건으로서 믿음 등 명제 태도의 존재를 옹호하려는 의미론적인 논변인데 반해, 제거주의는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명제 태도가 법칙적 속성으로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존재론적 논변이다. 그리고 여기서 존재자로서의 속성은 정신에서 독립되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언어의 술어에서 유추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삼고 있는 제거주의에 대해 자연 언어에서 제시하는 상식적 범주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실효성있는 것이 못된다.

물론 인지적 자살 논변은 단순히 제거주의가 상식적 범주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제거주의의 주장 자체도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려 하고 있는 상식적 범주를 전제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제거주의의 자기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이커가 지적한 3가지 문제들에 관해 내가 제거주의의 관점에서 구성해 본 대답들이 옳다면, 제거주의자가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 반드시 자신이 부정하는 상식적 범주를 전제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인지적 자살 논변은 정당하지 못하다. 처칠랜드가 제시한 반생기론에 대한 비판과의 유추가 베이커의 비판과는 달리 정당하다면, 인지적 자살 논변은 지식의 발달과 변화에 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사다리 비유를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본대로 베이커는 제거주의가 명제 태도의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과연 제거주의가 아직 대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그것의 정당한 비판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지적 역시 제거주의가 실재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실재론에서 강조하는 존재론적 측면의 핵심은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존재 세계가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현재 갖고 있느냐 여부는 실재론자의 입장에선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인지적 자살 논변이 얼핏 보기 보다는 제거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거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그것이 실재론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야 한다. 어떤 입장 값이 어떤 입장을 그 전제로 삼고 있을 때 값에 대해 제대로 논박하려면, 그 전제인 일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거나, 그 전제가 제대로 된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그로부터 값이 타당하게 귀결될 수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전제에 대한 언급없이 그 귀결만을 문제삼는 것은 그 비판의 대상자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만다. 예컨대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다른 전제로부터 자기를 비판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인지적 자살 논변 역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마치 그 논변은 제거주의의 주장 자체가 자신이 부정하려는 명제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제거주의의 진짜 전제가 무엇인지를 제거주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제거주의를 비판할 길은 전혀 없는가? 결국은 제거주의의 전제인 실재론을 문제삼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실재론을 거론함이 제거주의의 논의 맥락인 심신 이론의 틀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거주의는 실재론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있게 성립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15) 백도형 “제거주의와 실재론”, pp. 267-73을 참조.